

제15권 17호

2025. 9. 1~2025. 9. 14

하나로여겨된
모두의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주거래은행보다 필요충분은행을 찾는 소비자
- 이슈분석** 나날이 진화하는 보험사기
- 금융경영브리프** 도이치뱅크 등 글로벌은행, 사모금융시장 진출 확대
美 카드사, 스테이블코인 연계 카드 출시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급 부담으로 장단기 금리차 확대 전망
외 환 : 연준 금리인하는 달러 약세 요인
부 동 산 : 6.27 대책영향으로 시장 상승세 한풀 꺾여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김혜미(hmikim)
연구원	유승원(youth1)

논단

연구위원	윤선영(sunny)
------	------------

이슈분석

연구위원	이기홍(kihong.lee)
------	-----------------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김지현(jihyunkim)
연구원	유승원(youth1)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연구원	민현하(hyunhamin)
외 환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부동산 연구위원	황규완(gwhwang)

금융지표

연구원	서유나(yuna.seo)
-----	---------------

내용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담당연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D@hanafn.com)

제15권 17호

2025. 9. 1~2025. 9. 14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주거래은행보다 필요충분은행을 찾는 소비자
- 04 **이슈분석** 나날이 진화하는 보험사기
- 08 **금융경영브리프** 도이치뱅크 등 글로벌은행, 사모금융시장 진출 확대
美 카드사, 스테이블코인 연계 카드 출시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급 부담으로 장단기 금리차 확대 전망
외 환 : 연준 금리인하는 달러 약세 요인
부 동 산 : 6.27 대책영향으로 시장 상승세 한풀 꺾여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주거래은행보다 필요충분은행을 찾는 소비자*

윤 선 영 연구위원

소비자에게 주거래은행이란 거래 규모가 아닌 오랜 또는 잦은 거래로 정서적 친밀감이 쌓여 공고하게 거래를 유지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4년간 주거래은행의 충성도는 약화되고, 필요한 상품·서비스 이용에 따라 주거래은행을 인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금융역량이 개선된 소비자는 주거래은행의 편안/익숙함보다 기능적 효용에 점차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제 소비자는 본인이 필요할 때 금융 솔루션을 얻고, 미처 몰랐던 금융 필요를 챙기며 거래 효용을 느낄 수 있는 필요충분은행을 원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분석 시 ‘주거래은행’은 중요한 분석 요건 중 하나이다. 소비자는 주로 거래하는 은행 한 곳에서 금융 거래를 집중하며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은행은 신규 손님 유치보다 기존 손님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므로 거래 손님의 충성도를 높이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을 들인다. 최근 4년간 금융소비자의 행태를 추적해 보니(당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기반), 금융소비자는 은행 거래 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거래은행에 예치하며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금융환경 및 소비자 특성이 변화하면서 이런 주거래 관계가 퇴색해지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제는 주거래은행의 공고한 위상에 안도하기보다 은행-손님 관계의 변화를 직시하고 새로운 관리방향을 모색해 볼 때이다.

❖ 거래 금융기관이 확장되며 금융거래 분산

소비자에게 금융기관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을 물으면, 열의 아홉은 ‘은행’을 떠올린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금융기관은 곧 ‘은행’으로 각인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은행’을 떠올리는 비율은 감소하고 ‘증권사’나 토스, 카카오 계열 등의 ‘핀테크사’를 떠올리는 비율이 증가했다. 가장 주로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고를 때도 시중은행 대신 인터넷전문은행, 증권사, 핀테크사를 선택하는 비율이 '23년 20%에서 2년 만에 27%까지 상승했다. 금융소비자의 54%는 ‘금융거래 패턴상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한 곳이라 할 수 없다’에 동의하고, 금융자산이 증가함에도 주거래은행에 예치하는 자산은 점차 감소해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은행의 독보적 위상 약화, 금융니즈를 해결하는 금융기관의 종류 다양화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금융기관별 특징점을
고루 누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산을
분산 거래

모바일 금융이 보편화돼 자산 이동이 쉬워지고, 거래 기관 수가 증가하므로 한 기관에 예치하는 자산 규모는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적 이유에 앞서 소비자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자산을 분산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소비자는 한 기관과 거래를 집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여러 금융기관의 특징점을 고루 누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래 기관을 늘린다. 소비자는 필요 시 스스로 정보를 찾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금융역량이 개선됐고, 금융기관은 상향된 서비스 품질을 기반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만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는 주거래 한 곳의 관리에 의존하기보다 본인에게 유리한 특징을 취사선택하는 차원에서 영리하게 거래를 분산하고 있는 것이다.

∴ 정서적 신뢰보다 기능적 필요가 증시되는 주거래 관계

주거래은행
관계(충성도) 약화,
정서적 애착보다
기능적 필요를 중시

'23년 주거래은행에서 부여하는 고객 등급을 알고 관리하는 소비자는 43%로 절반이 안됐고, 2년 만에 그 비율은 35%까지 감소한다. 고객 등급이 우대혜택과 직결됨에도 소비자는 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주거래은행에 대한 만족도, 지속 거래 의향과 같은 충성도 지표도 일제히 하향세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주거래은행과의 관계가 약해진다는 의미인데, 소비자가 정의하는 주거래은행의 뜻을 보면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소비자는 거래 규모가 큰 곳이 아니라 거래 '기간'이 길거나 거래가 '잡은' 곳을 주거래은행이라고 생각한다. 즉, 관성적(습관적) 익숙함과 정서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애착 관계가 형성된 곳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래 의미에서 이런 정서적 요인은 점차 감소하고 '다양한 서비스 이용', 투자나 대출 등 '특정 거래' 중심의 기능적 이유가 많이 고려되는 추세이다.

거래 시작-종단까지
전반적 과정에서도
필요한 거래의 충족
여부가 중요

실제 주거래은행에서 거래가 느는 이유로 '앱의 편리성'과 수시입출금, 카드, 정기예금 등 '상품력'이 '직원 관계'나 신규상품을 안내받는 '관리 경험'보다 더 많이 선택됐다. 주거래뿐만 아니라 거래를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것도 필요에 의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거래하는 경우, 단발성 필요가 충족되면 거래를 끝내거나 추가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를 차지한다. 거래 은행과 관계를 축소·중단할 때도 부정적 감정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불만족스러운 경험' 때문에 거래를 중단한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다른 은행이 더 나은 조건'이라서, '그냥, 상황상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 소비자 필요를 발굴하고 충분히 대응하는 필요충분 관계 중요

급여 거래, 대출 거래 등 장기간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되는 추가혜택이나 멤버십 등 소속감을 강조하는 로열티 프로그램의 효용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하지만 앞서 확인한 것처럼 그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므로 더 늦지 않게 소비자 관계의 새로운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례로 토스는 차별화된 혜택을 모아 멤버십을 유료화하거나 개별 상품·서비스에 거래를 지속할 유인 요인을 탑재함으로써 필요 관계를 형성한다.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거래를 결정한다면 은행은 충성도에 집중하기보다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충분히 대응할 준비를 하고, 나아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금융 필요를 선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거래 기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금융행동, 인식 변화를 꾸준히하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진다. 최근 금융소비자의 변화 중 하나는 안정형 투자 성향이 줄고 적극+중립형 투자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금융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플랫폼을 통한 거래 편의성이 개선되면서 투자 거래가 대중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은행은 신규 거래를 유발하는데 투자 상품, 투자 정보의 영향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투자 수요를 고려해 가상자산, 해외/현물투자 관련 상품을 확대하고 관련 업계와 협업하는 등 소비자가 투자기관을 통하지 않고 은행에서도 편하게 투자 정보/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노후대책을 우려하면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Unmet needs를 심층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 소비자는 생각보다 오랜 기간(평균 5년)에 걸쳐 목적자금을 만들길 바라고, 노후자금 중요한 목적자금 중 하나이다. 이를 고려해 쉽고 직관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인식 못하는 노후의 여러 문제를 일깨우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금융의 효익을 체감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때 규칙적/강제적 옵션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금융 실천(ex. 목표 수익, 목표 채증 도달 시 적립 등)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상품·서비스의 특징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듯 소비자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금융 필요로 연결해 충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필요충분은행과의 유대는 주거래은행보다 약할지라도 언제든지 소비자가 필요할 때 찾는, 이익이 되는 금융파트너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정서적 유대감보다
소비자 필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금융
필요를 제안해
필요충분 관계를 형성

필요충분 관계를 위해
소비자 변화에 민감할
필요, 최근 직접투자
니즈가 커지는 소비자
변화에 대응

또 다른 특징,
노후대책의 우려를
세분화해 금융 필요로
연결하며 효익을 제공

나날이 진화하는 보험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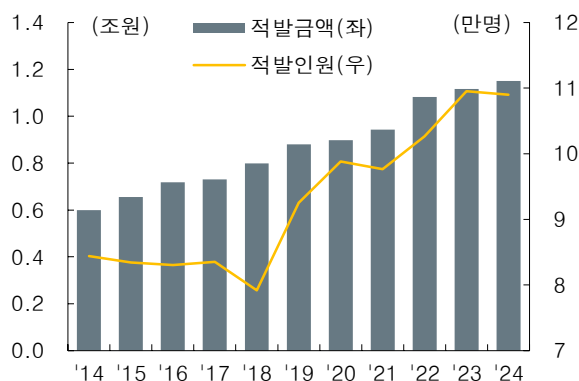
이 기 흥 연구위원

국내 보험사기는 적발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기술 발전으로 사기수법이 나날이 발달하며 조직화된 범죄 집단 형태로 진화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험사기로 위법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 오래 전부터 보험사기 방지에 노력 중인 해외처럼 국내도 보험사기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관리 단속하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 '24년 국내 보험사기는 적발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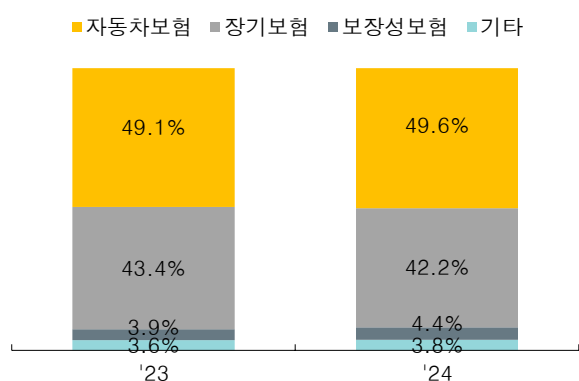
- '15년 이후 10년 동안 국내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여 '24년에 적발금액이 사상 최대치인 1조 1,502억원을 기록
 -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5년 8.3만명에서 '24년 10.9만명으로 2.6만명 증가
- 특히, 보험 관련 종사자와 60대 이상의 고 연령층에서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
 - '24년 보험 관련 종사자와 60대 이상이 국내 보험사기 적발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각각 0.8%p, 3.1%p 증가하여 9.1%, 25.7% 비중을 차지
 -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에서 50대 이하는 전 연령대에서 전년보다 감소
- 또한, 보험사기는 허위사고와 고의사고 유형에서 크게 증가
 - 허위사고와 고의사고 유형의 전년 대비 적발금액(증가율)은 각각 201억원(9.4%), 91억원(5.7%)으로 크게 증가

■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



자료 : 금융감독원

■ 보험업종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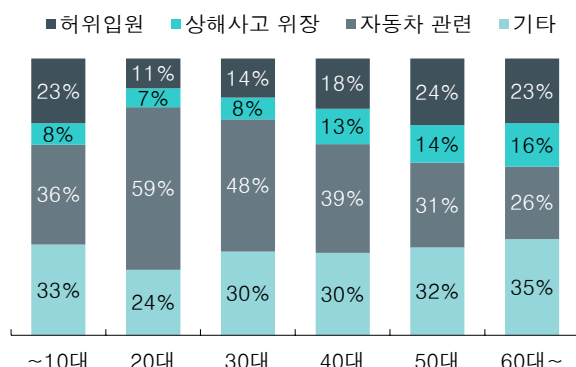
■ 국내 보험사기는 손해보험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사고내용조작, 허위사고, 고의사고 유형 순으로 많이 발생

- '24년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각각 5,704억원(49.6%), 4,855억원(42.2%)으로 손해보험이 국내 보험사기에서 대다수 비중을 차지
- '24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유형별 비중은 사고내용조작(58.2%), 허위사고(20.2%), 고의사고(14.7%) 순
- (사고내용조작) 수리비 과장 청구, 평일 사고를 휴일 사고로 조작하는 등 주로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 (허위사고) 물건을 허위 분실 신고, 질병을 상해사고로 위장하는 등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 (고의사고) 살인, 자살, 상해, 자해 등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유형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자동차보험이 전체 고의사고에서 81%를 차지

■ 기술 발전으로 보험사기 수법이 발달하고 조직화된 범죄 형태로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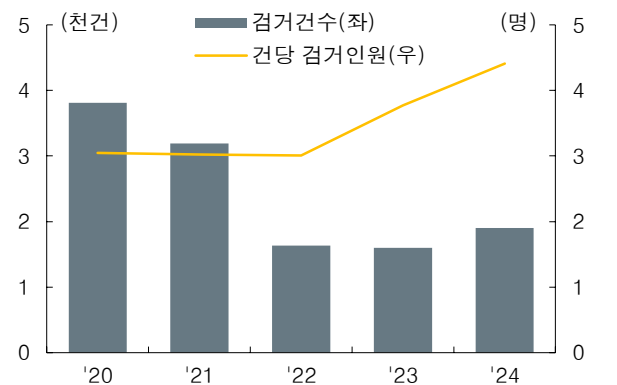
- AI·딥페이크 활용 등을 통해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등 기술 발달과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보험사기 수법도 진화
 -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조작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고를 실제처럼 꾸밈
- 주로 폭력 조직에 적용됐던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보험사기에 적용되는 등 병원 관계자, 설계사 등이 연계한 보험사기가 증가하며 조직적인 범죄 형태로 진화

■ 연령대별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2024년 기준

■ 보험사기 단속 현황



자료 : 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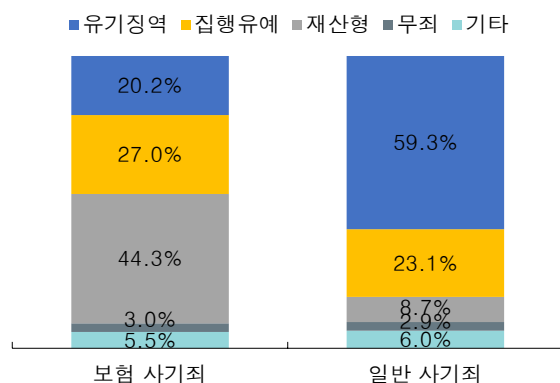
■ 보험사기의 원인은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 보험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질병, 상해 등 미래의 위험에 대해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사고 발생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구조로 계약자의 도덕성에 의존
- 특히, 경기 침체, 실업, 개인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고가 보험사기에 빠지기 쉬운 환경을 조성
 - '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무직, 일용직 등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보험사기가 전년 대비 큰 폭(136.8%)으로 증가
- 또한 낮은 처벌 수준, 입증 책임의 어려움, 보험사기 전담 수사 인력 부족 등 제도적 요인이 보험사기 증가에 영향
 - '21년 일반 사기와 보험사기가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비중은 각각 59.3%와 20.2%로 보험사기가 유기징역으로 선고되는 비중이 크게 낮음

■ 보험사기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 인상과 선의의 피해자를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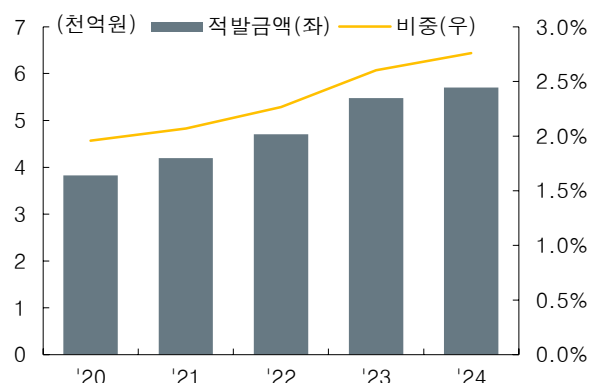
- 보험은 위험에 대해 다같이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는 구조로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전체 계약자의 위험보험료로 충당
 - '24년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국내 자동차보험료 20.7조원의 2.76% 수준, 자동차 1대당 보험사기 부담액은 2.2만원 수준
-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조사 비용, 사기 방지 시스템 도입,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 소송 등 보험사기로 증가한 보험사의 운영비는 부가보험료 상승으로 연결
 - 보험사기 적발·예방을 위한 조사 인력 충원, 시스템 강화 등은 막대한 비용이 발생
- 보험사가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보험 심사 및 보험금 청구 심사를 강화하며 보험사기와 무관한 사람이 심사서 탈락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 보험 사기죄와 일반 사기죄의 선고형별 비중



자료 : 보험연구원, 2021년 기준

■ 자동차보험료 중에서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 해외에서는 보험사기방지 전문 조직 설립과 처벌 강화 등으로 보험사기에 강력히 대응

- 미국은 보험사기를 형사 범죄로 규율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강력히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법(Federal Insurance Fraud Protection Act)을 제정
 - 미국은 1990년대 들어 자동차 및 의료보험 분야에서 의사, 정비소, 브로커 등이 공모하는 조직적 범죄가 확산되자 '94년 보험사기방지법을 시행
- 미국은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으로 소비자의 위법성 인식 제고와 내부 범죄자 차단으로 자국 보험 산업을 범죄로부터 보호
 - 허위 진술, 고의적 기만, 보험자산 유용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조직적인 사기인 경우 수백만 달러의 벌금 부가와 가중 처벌을 적용
 - '04년 가짜 시신을 태워 생명보험을 타낸 보험사기자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
- 영국은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 간 정보 공유와 공공기관과의 수사 공조가 가능한 보험조사국(Insurance Fraud Bureau)을 설립('06)
 - 보험사기는 개별 보험사의 손실 문제가 아닌 보험산업 전체의 시스템적 리스크로 인식하여 산업 차원의 플랫폼으로 설립
 - 경찰청 산하 보험사기 전담 수사부서(Insurance Fraud Enforcement Department)와 실시간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수사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구현
- 영국 보험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인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력 및 분석 인프라를 정착시켰으며, 보험 산업 전반의 신뢰를 회복
 - '23년 자동차보험 사기 유형인 Crash for Cash 관련 사례 6,000건 이상을 조사하여 약 9천만 파운드 규모의 잠재 보험사기를 탐지
 - 전국의 보험사기자 정보를 등록한 보험사기 등록 시스템(Insurance Fraud Register)을 보험사기 적발에 적극 활용

■ 국내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

- 국내는 보험사기로부터 보험 산업 보호를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 중이며, '24년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처벌과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더욱 강화
 - 하지만 개별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로 보험사간 수사력 편차가 존재하고, 수사재판 과정 정보는 공유하기 어려워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 대응에 한계
- 보험사, 조사 기관, 병원, 법원 등 각 기관과의 협업 및 분산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보험사기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해 수사력 강화와 적발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
- 또한, 보험업계와 정책당국, 언론, 학교 등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올바른 보험 윤리 문화 형성에 노력할 필요 

도이치뱅크 등 글로벌은행, 사모금융시장 진출 확대

김지현 연구위원

도이치뱅크는 자산운용부문 강화 및 관련조직 신설을 통해 사모금융 비즈니스 강화를 추진한다. 사모대출시장의 급성장이 은행의 전통적 기업대출 점유율을 하락시키는 위협이자 기회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글로벌 은행은 사모대출을 활용한 수익원 다각화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자산운용사와 협력하거나 독자적 펀드를 설립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은행도 사모금융시장 확대에 대응해 신규 수익원 확보와 고객의 니즈 대응을 위해 다양한 사모금융활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도이치뱅크는 사모금융시장 공략을 위해 자산운용부문 강화에 이어 관련 부서를 신설

- 도이치뱅크는 Corporate Private Solutions(CPS) 부문을 신설해 기업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대출과 사모 자산 솔루션 등 사모금융 솔루션 제공을 추진^[1]
- 그동안 도이치뱅크는 자체 자본으로 사모시장에 투자해왔으나, CPS 신설로 외부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다양한 고객대상으로 투자상품 제공 예정
 - 특히 사모대출은 저금리상황에서 더 높은 금리를 추구할 수 있어 기관투자자의 수요 증가
- 앞서 지난 3월 자산운용 계열사 DWS와 전략적 협력을 발표하며 은행의 자금유동성 및 소싱, 금융 구조화 역량과 DWS의 대체투자 운용 경험을 결합해 사모시장 공략 강화에 나설 예정^[2]
 - 도이치뱅크가 발굴한 자산기반 금융(asset based finance)과 직접대출 등 사모금융 투자 기회를 DWS 손님에게 우선접근권을 제공

■ 이는 사모대출시장의 급성장과 기업고객의 니즈 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

- 최근 사모대출시장 확대로 기업 조달 수단에서 은행의 전통적 대출 비중이 크게 감소하면서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의 구조 변화 및 기업대출 시장 점유율 하락
 - 글로벌 사모대출 규모는 2000년 400억달러에서 2024년 1.6조 달러로 증가했으며, 2029년 2.6조달러에 이를 전망(Preqin)
- 특히 사모대출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출구조 설계가 가능하고 전통적 신디케이트론 대비 빠른 의사결정과 높은 거래 성사 확률로 기업고객의 사모대출 니즈 증가

[1] "Deutsche Bank promotes Buvat to lead new corporate private solutions business", FNLondon, 2025.7.31

[2] "DWS and Deutsche Bank launch private credit cooperation", Fund Selector Asia, 2025.3.24

■ 글로벌 은행은 자산운용사와 협력 및 독자적 펀드 구축 등 다양한 대응전략을 전개

- 글로벌 은행은 사모시장 공략을 위해 자산운용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은행의 자금조달 및 금융 구조화 역량과 자산운용사의 투자상품화와 운용 역량을 결합
 - UBS는 General Atlantic Credit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동 사모대출팀을 운영하며, UBS는 기업 대출 발굴 및 구조설계 역할을, General Atlantic Credit은 UBS 발굴한 대출기회를 기반으로 투자자 대상 자금조달 및 운용, 투자활동 등을 수행
- 또는 은행 산하에 자산운용사 설립을 통해 독립적으로 진출하는 방식도 추진
 - 골드만삭스는 자산운용부문 GSAM을 통해 1300억 달러의 사모대출 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5년내 30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
 - 이탈리아 투자은행 Mediobanco는 Cairn Capital과 Bybrook Capital을 인수해 Polus Capital Management를 설립하고 유럽 사모대출과 대체 투자 전략 강화

■ 국내 은행도 대체 수익원 확보를 위한 사모금융시장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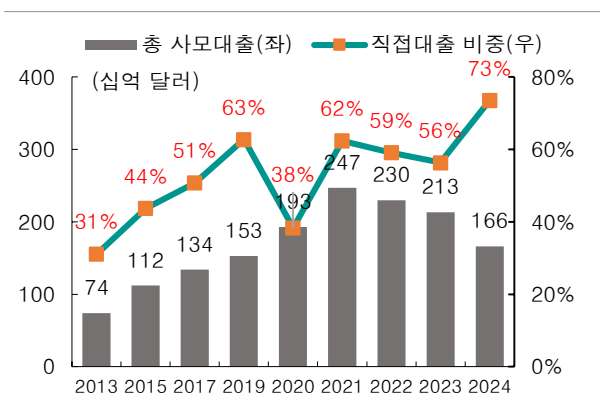
- 국내 사모금융시장도 자본시장법 개정(2021) 이후 지속 성장세이며, 최근 대체투자에 대한 수요 상승으로 사모펀드 금융의 인기 증가
 - 국내 기관전용사모펀드 규모 136.4조원으로 2005년 대비 연평균 성장률 20.6% 기록
- 최근 은행까지도 자산운용사와 협력하여 펀드 조성에 나서며 시장내 역량 강화 시도
 - KB금융그룹은 블랙스톤과 상호 협력을 강화해 대체자산 펀드와 자금조달 분야 협력 확대하며, 신한자산운용은 유럽 사모대출시장 투자확대 검토를 발표
 - IBK기업은행이 키움프라이빗에쿼티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지원 목적으로 750억 원을 출자한 펀드를 조성해 연내 '중소중견 점프업 사모투자합자회사' 출범 예정
- 은행은 수익성 확대, 자본 효율성, 고객과 시장의 대응을 위해 사모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 

■ 글로벌 공모/사모금융시장의 기간별 투자수익률

구분	사모시장		공모시장	
	Buyout	지분/ 벤처캐피탈	MSCI	S&P500
1년	8.5%	2.7%	33.1%	36.3%
3년	6.3%	-5.2%	9.6%	11.9%
5년	15.6%	14.3%	13.6%	16.0%
10년	14.1%	14.5%	10.6%	13.4%
25년	13.4%	10.7%	6.9%	8.2%

자료 : McKinsey

■ 글로벌 사모 대출시장 조달규모 추이



자료 : McKinsey

美 카드사, 스테이블코인 연계 카드 출시

유 승 원 연구원

美 카드사인 Visa는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카드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Visa의 스테이블코인 카드 출시는 시장 성장 및 결제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Mastercard 또한 카드, 해외송금, B2B 결제 등에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 디지털자산 ATM 등이 도입되어 있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다. 국내 금융사들도 관련 규제 변화를 탐색하며 내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Visa는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출시할 예정

- Visa는 美 핀테크 Stripe의 자회사이자 스테이블코인 결제 플랫폼인 Bridge와 협업하여 남미 6개국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출시할 계획^[1]
 - Visa는 가맹점 인프라 및 고객 기반을 제공하고, Bridge는 고객의 스테이블코인에서 자금을 공제하고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솔루션을 제공
 - 스테이블코인 결제 카드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칠레 등 6개국에서 우선적으로 출시할 예정
- 또한, Visa는 아프리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회사인 ‘Yellow Card’와 협업해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카드 출시를 추진^[2]
 - Visa와 Yellow card는 '25년 최소 한 곳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CEMEA(중앙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

■ VISA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과 결제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카드결제 규모는 2.3억 달러('23.1)에서 11억 달러('25.2)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스테이블코인 성장에 따라 더욱 확대될 전망
 - 美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5년 2,530억 달러 수준인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8년 2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 예측
- 또한,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결제 시스템은 기존 은행의 해외송금 결제 시스템 대비 거래시간, 비용, 운영시간 등의 면에서 유리하여 결제트렌드의 변화 예상

[1] “Visa, Bridge partner to launch stablecoin-linked cards”, Reuters, 2025.4.30

[2] “Visa expands stablecoin initiatives in CEMEA”, Visa, 2025.6.18

- 이에 따라 '25년 Visa는 스테이블코인을 핵심 사업으로 채택하고 결제 인프라, 송금, 은행 대상 스테이블코인 관리 플랫폼, 스테이블코인 카드 등의 비즈니스 추진
 - Visa는 '21년부터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등 신사업 기회를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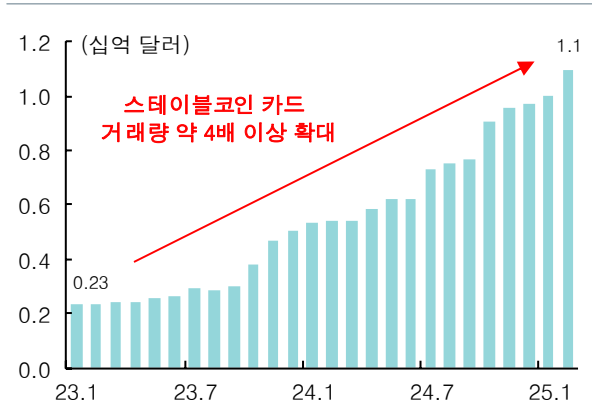
■ Mastercard도 스테이블 코인 카드뿐만 아니라 해외송금, B2B 결제 등을 확대할 계획

- (카드) '25년 디지털자산 거래소 'OKX', 'Kraken', 디지털자산 핀테크 'Moonpay'와 제휴하여 미국, 영국 및 유럽 지역에 스테이블코인 카드를 출시할 계획
- (해외송금) 송금 솔루션 'Mastercard Move' 내에 복잡하고 긴 블록체인 지갑 주소 대신 별칭을 사용해 편의성을 높인 '디지털자산 송금 간소화 서비스' 제공
- (B2B 결제) '25.4월 스테이블코인(USDC) 발행사 Circle, 캐나다 핀테크 Nuvei와 제휴하여 판매자가 판매 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산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국내 카드사들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환경 변화 및 시장 기회를 꾸준히 탐색할 필요

- 국내에서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카드를 이용한 결제나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USDT) 등을 원화로 인출하는 디지털자산 ATM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가능
 - 홍콩 핀테크 '리dot페이(Redot Pay)'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체크카드를 출시하였으며, 국내 Visa 가맹점에서도 해당 카드의 이용이 가능(국내 실물카드 발급은 불가능)
- 국내에서는 '24.7월부터 투자자보호 내용 중심 가상자산법 1단계가 시행 중이며, 금융위는 '25.10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 가상자산법 2단계를 발의할 예정
- 국내 금융사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환경 변화 및 시장 기회를 꾸준히 탐색하며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모색할 필요 

■ 스테이블코인 카드 거래량 추이



자료 : Artemis

■ 기존 해외송금·결제 - 스테이블코인 송금·결제 비교^[3]

	기존 은행 해외송금·결제	스테이블코인 송금·결제
거래속도	1~5 영업일	거의 즉시
거래비용	국제전신 송금: 거래당 \$15~50 자동결제시스템: 거래당 \$0.2~1.5 신용카드: 거래당 1.5~3.5%	거래당 0.1\$ 미만
국제거래	중개은행 및 국내은행 시스템에 의존, 추가 외환거래 수수료 부과	블록체인 시스템 기반, 외환거래 수수료가 낮거나 부과되지 않음
보안	확립된 은행 표준과 기술을 적용하여 사기 위험을 완화	암호학적으로 안전하나, 지갑 및 키 도난에 취약
이용시간	은행 영업시간 내	연중무휴 이용 가능

자료 : McKinsey

[3] "The stable door opens: How tokenized cash enables next-gen payments", McKinsey, 2025.7.21

금리: 수급 부담으로 장단기 금리차 확대 전망

민 현 하 연구원

美 금리는 고용 악화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며 단기금리 중심으로 하락한 반면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로 장기금리 하락은 제한되었다. 韓 단기금리는 美 금리 하락, 경기 회복 지연 우려로 하락했으나 장기금리는 '26년 예산안 경계감으로 하락이 제한되었다. 8월 금통위는 가계부채/주택가격 추이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유지했다. 韓 시장금리는 美 금리 하락에도 물량 부담과 외국인 매수세 둔화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 美 금리는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에도 고용 둔화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되며 하락

- 美 단기금리는 관세 영향이 물가0(PPI(YoY,%)) : 6월 2.3 → 7월 3.3)에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고용 시장 둔화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되며 하락
 -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감(만명) : 1-4월 12.3(평균) → 5월 1.9 → 6월 1.4 → 7월 7.3
- 다만, 美 장기금리는 트럼프의 연준 압박 강화로 연준의 독립성 우려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며 단기금리에 비해 제한적 하락
 - 美 2/10년물 금리(%) : 7월말 3.96/4.38 → 8.28 3.63/4.21
- 재정적자 문제가 글로벌 차원의 공통 이슈로 주목받는 가운데 프랑스 금리는 총리의 긴축 예산 지지 확보를 위한 신임 투표 발표로 정부 붕괴 우려가 확산되며 급등
 - 프랑스 10/30년물 금리(%) : 7월말 3.36/4.16 → 8.26 3.50/4.40

■ 韓 장단기 금리차는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과 '26년 예산안 확대 우려로 확대

- 韓 단기금리는 美 금리 하락, 경기 회복 지연 우려(KDI '25년 성장률 전망 0.8%)에 따른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 등으로 소폭 하락
- 한은도 소비심리 회복,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건설경기 악화가 성장률 추가 상승을 제한해 대규모 추경 집행에도 0.9%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다만, 장기금리는 '26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신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유지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며 내년도 물량 부담에 대한 경계감으로 하락 제한
 - '26년 국채 발행 예정액은 232조원으로 '25년 본예산(197.6조원) 대비 34.4조원 늘어났으며 국고채 순증 규모는 115.7조원으로 올해 대비 2.1조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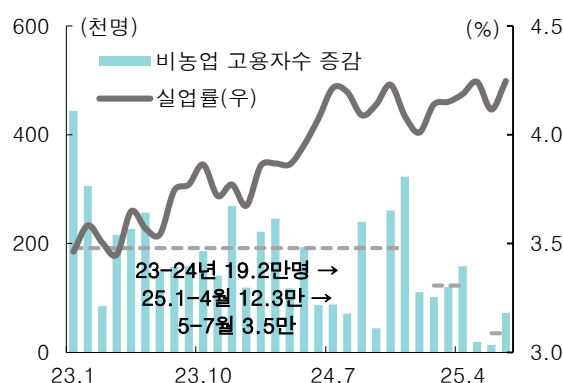
■ 8월 금통위, 0.9%의 성장률 전망에도 가계부채 추이 점검 필요성으로 기준금리 동결

- 금통위는 건설 경기 악화로 성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높고 가계부채/주택가격 추이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준금리 동결(2.50%)
 - 총재는 한은은 금리 인하로 주택가격을 조절하는 것이 아닌 유동성 과다 공급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과하게 부추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언급
-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美 금리 인하 재개 가능성 확대, 경기 둔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등으로 '1인 인하 소수의견'과 함께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유지
-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KOSPI 상승 모멘텀 약화로 자산시장 과열 우려가 축소된 점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美 연내 기준금리 인하 재개 예상에 따라 韓美 내외금리차로 인한 한은 부담도 축소

■ 韓 금리는 美금리 하락에도 물량 부담, 외국인 매수 축소로 제한된 범위 내 등락을 거듭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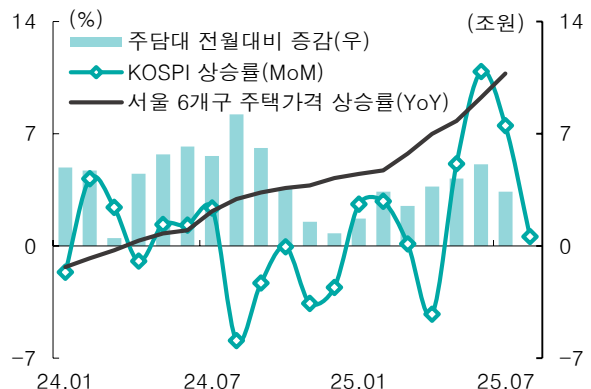
- 美 금리는 관세發 물가 상승과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에도 고용 둔화 추세가 지속되면 9월 FOMC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 압력이 부각될 전망
- 韓 금리는 美 금리 하락, 내수 경기 회복 차원의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단기 영역을 중심으로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8월 금통위의 3개월 내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인하 가능성 5명/동결 1명'으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정확한 인하 시점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 다만, 장기 영역은 하반기 발행 물량 부담, 현·선물 시장 내 외국인 순매수 축소(외국인 채권 순투자(조원) : 5월 11.3 → 6월 3.6 → 7월 3.0) 으로 하락 압력이 제한될 전망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2.35%~2.50%, 2.75%~2.90% 범위로 전망 

■ 美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감 및 실업률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금융연구소

■ KOSPI, 주택 가격 상승률, 주택담보대출 추이



주 : 서울 6개구(용산,성북,마포,서초,강남,송파) 주택가격 상승률 단순 평균
자료 : KB부동산, 인포맥스, 하나금융연구소

외환: 연준 금리인하는 달러 약세 요인

김 영 준 연구위원

원/달러 환율은 월초 1,400원까지 급등한 이후 한미 무역협상 타결과 美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하락 반전했다. 달러화는 고용쇼크와 연준 독립성 우려 등으로 약세를 기록했다. 미국이 주요국과 관세 협상에 타결하면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 다만 높은 관세를 부과 받은 신흥국들은 고율 관세와 통화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와의 싸움이 불가피하다. 연준 금리인하 기대로 달러화 약세가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도 동반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락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역내외 매수로 하락폭 제한

- 원/달러 환율은 월초 코스피 급락과 외국인 투자자 매도로 1,400원을 상향돌파
 -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투자자들에게 증시 부양보다 과세 확대에 초점을 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실망매물 출회
- 이후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개선과 美 금리인하 가능성 확대로 인한 달러화 약세 등으로 하락전환했으나 역내외 저가매수로 하락폭 제한
 - 한미 양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조건으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

■ [국제 환율] 달러화는 연준 독립성 우려로 약세, 유로화는 프랑스 정치 불안에도 강세

- 美 달러화는 파월 연준 의장 해임 루머와 무역합의를 앞둔 불확실성에 강세를 보이다 고용지표 쇼크와 트럼프의 연준 장악 시도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부각되며 급락
 - 파월 연준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고용시장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제 정책을 전환할 때가 왔다”라고 선언,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임
- 유로화는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ECB 기준금리 동결 전망과 美·EU 무역 갈등 완화로 강세
 - 국가부채를 줄이려는 프랑스 정부에 야당이 맞서면서 내각이 붕괴될 위기
- 日 엔화는 참의원 선거 이벤트가 종료되고 미·일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강세로 전환된 이후 BOJ 금리인상 유효 기대로 추가 강세
- 中 위안화는 미·중 관세 휴전 연장 소식과 글로벌 달러화 약세와 더불어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연속해서 절상 고시한 영향으로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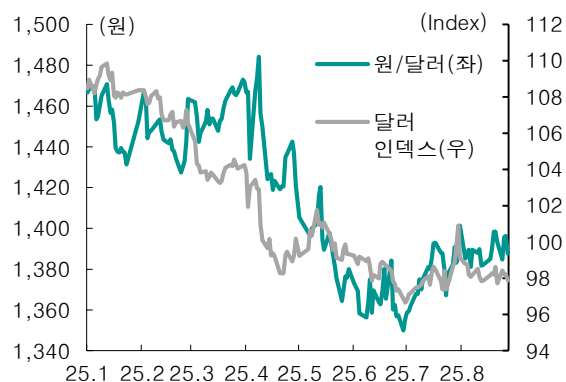
■ 고율 관세를 부과받은 신흥국,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할 가능성

- 상반기 달러 약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온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EU·일본 등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완화
 -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145%)는 11월 9일까지 추가로 유예하기로 결정
- 관세 협상 이후 미국은 관세 수입을 통한 재정수지 개선 및 투자자금 유입이 기대되면서 통화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반면, 상대국은 최소 10%의 관세 부담을 떠안고 대미 투자자금 유출이 예정되어 있어 통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특히 인도·베트남·대만·스위스 등 15%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 받은 국가들은 관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자국통화 약세를 유도할 동인
 - 美·中 무역전쟁 이후 '제2의 중국'을 꿈꾸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온 아시아 수출국들은 고율 관세 부과와 통화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노출

■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흐름을 추종하는 가운데, 하락폭은 제한적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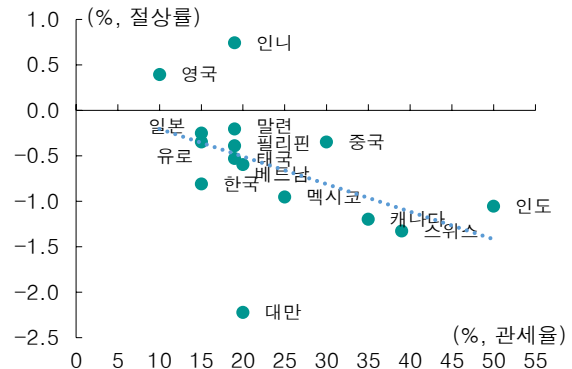
- 연준이 올해 연말까지 2~3회의 금리인하(4.5%→ 3.75~4.0%)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화가 약세 압력을 받고 원/달러 환율도 동반 하락할 전망
- 다만 국내 성장세가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해외 직접 및 주식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원화가치가 달러 약세를 온전히 쫓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수입업체 결제와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화 실수요는 환율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
-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과 비슷한 1,360~1,410원에서 주거래를 형성할 전망 

■ 원/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



자료 : Bloomberg

■ 주요 국가별 관세율 및 통화 절상률 비교



주 : 7.24일 대비 8.18일 절상률
자료 : Bloomberg, 하나금융연구소

부동산: 6.27 대책영향으로 시장 상승세 한풀 꺾여

황 규 완 연구위원

6.27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서울의 거래량도 크게 감소되었다. 정부의 규제는 부동산에 쏠린 대출이 거시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으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정된 공급 감소에 대응하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 부동산시장은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취득세 증과 배제 등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가격 약세 및 거래 위축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6.27 대책의 영향으로 매매가격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며 매매거래도 크게 감소

- 6.27 대책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7월의 전국 주택가격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도 영향을 받아 가격 하락폭이 확대
 - 7월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 전국 0.04%(전월대비 0.12%p ↓), 수도권 0.18%(▼0.18% ↓), 지방광역시 -0.14%(▼0.06% ↓)
- 국토부의 7월 매매거래량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전월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강남 3구보다 그 외 지역이 더 크게 감소
 - 7월 서울 주택매매거래량은 8천호 수준으로 전월대비 37%, 전년동월대비 51.9% 감소
 - 강남 3구 거래량이 6월 대비 7월에 37.3% 감소한 반면 그 외 서울 지역은 54.1% 감소

■ 6.27 대책은 수도권 중심의 대출 증가세에 대응하고 규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

- 6.27 대책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목표,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신용대출 한도 강화 등을 제시하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출 규제
 - 통상 규제 예외를 두었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정책대출도 규제 항목에 포함
- 3단계 DSR 적용이 7월부터 예정되어 있음에도 금리하락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및 규제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 목적
 - 대출한도 강화 외에 대출 만기 제한, 전입의무 강화, 전세대출 비중 축소 등도 포함
- 정부의 6.27 대책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교육책으로 새정부는 DSR 추가 강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추가 대책도 고려 중
 - 보험연구원(25.1월), 한국은행(25.4월) 등에서 주담대의 증가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의 주요한 위험요인임을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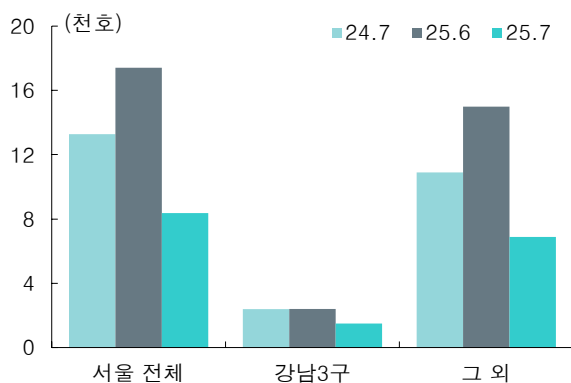
■ 예정된 아파트 입주 감소 등에 대응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이 필요한 상황

- 실수요자의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학술 연구 등에서 지적한 정책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주희·유선종(2021), 최은형·구형모(2021) 등은 대출 규제와 같은 수요 억제 정책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됨을 지적
-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향후 감소될 예정인 상황에서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실적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
 - 아파트 입주 및 예정물량(만호) : 20.6(2026년), 20.1(2027년), 34.5(최근 5년 평균)
 - 주택 인허가 실적(만호) : 13.8(2025년 상반기), 42.8(2024년), 47.6(최근 5년 평균)
- 새정부가 4기 신도시 개발에 대해 유보적인 관계로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심 국공유 유휴부지의 활용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

■ 지방 부동산 시장은 각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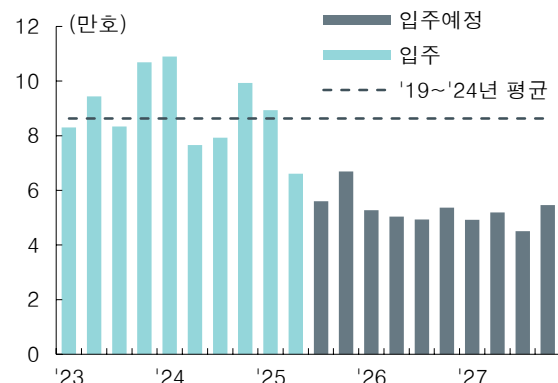
- 지방 주택시장은 6.27 대책에서 제외되고, 3단계 DSR 적용의 유예 및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등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여전히 더딘 상황
 -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2단계 DSR의 위험가산금리(0.75%) 적용
 -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지방의 저가주택 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 공급과잉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는 있으나 활황기 집중된 공급, 지방 경기 위축에 따른 구매력 저하, 낮은 가격 상승 기대감 등이 복합된 결과
- 가격 급락의 우려는 과거보다 개선되었으나 수도권 규제 집중에 따른 반사이익은 제한적이며 당분간 가격 약세와 거래량 위축이 이어질 전망 

■ 서울시 주택 매매거래량



자료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분기별 아파트 입주 및 입주 예정 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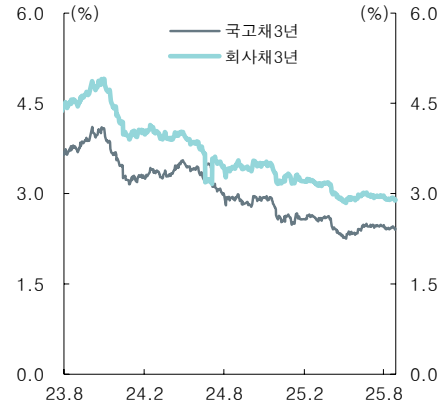


자료 : 부동산114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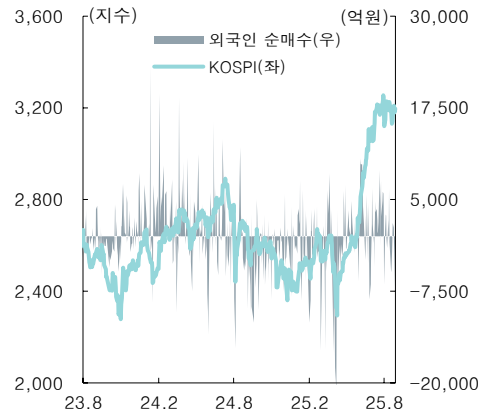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3년말	3.91	3.83	3.69	3.90	3.15	3.16
'24년말	3.33	3.39	3.01	3.28	2.60	2.76
7월말	2.51	2.51	2.50	2.95	2.46	2.59
8월 22일	2.51	2.53	2.50	2.93	2.46	2.62
8월 25일	2.52	2.53	2.49	2.92	2.43	2.60
8월 26일	2.51	2.53	2.49	2.90	2.42	2.60
8월 27일	2.51	2.53	2.48	2.89	2.40	2.57
8월 28일	2.51	2.53	2.49	2.90	2.42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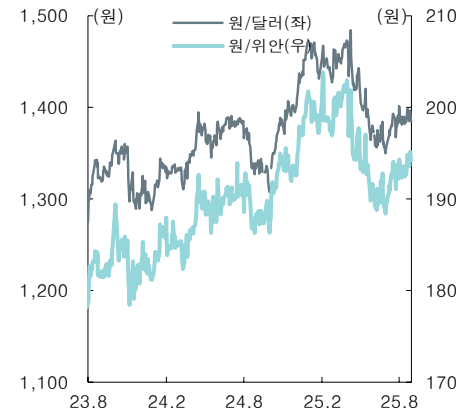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3년말	2,655.3	94,189	460	7,017
'24년말	2,399.5	53,155	304	-1,207
7월말	3,245.4	164,556	540	3,444
8월 22일	3,168.7	83,375	237	1,817
8월 25일	3,209.9	80,917	220	1,188
8월 26일	3,179.4	129,549	325	-6,860
8월 27일	3,187.2	88,519	282	-2,037
8월 28일	3,196.3	98,758	312	-243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3년말	1,288.0	911.0	181.2	1,425.1
'24년말	1,435.5	928.0	197.0	1,487.9
7월말	1,387.0	919.8	192.6	1,583.1
8월 22일	1,393.2	947.8	194.4	1,632.1
8월 25일	1,384.7	936.1	193.6	1,608.4
8월 26일	1,395.8	946.7	195.1	1,625.0
8월 27일	1,396.3	946.7	195.2	1,625.0
8월 28일	1,387.6	944.2	194.6	1,6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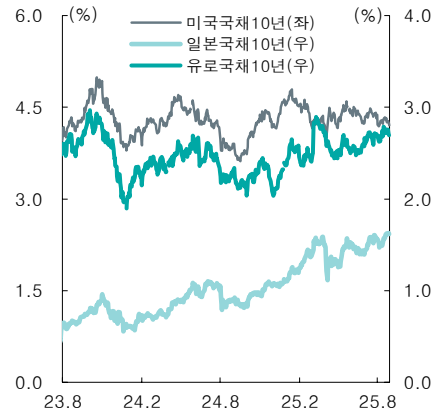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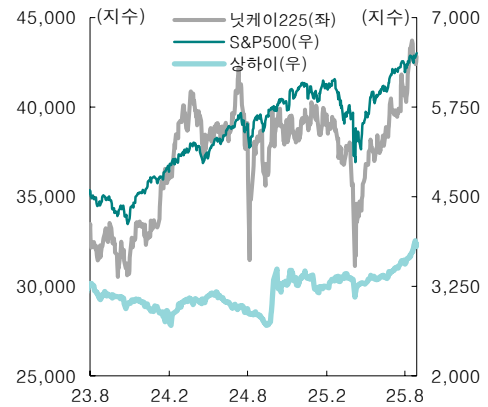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3년말	5.33	5.33	4.25	3.88	0.61	2.02
'24년말	4.33	4.31	4.24	4.57	1.10	2.37
7월말	4.33	4.34	3.96	4.37	1.56	2.70
8월 22일	4.33	4.35	3.70	4.25	1.63	2.72
8월 25일	4.33	4.35	3.72	4.28	1.62	2.76
8월 26일	4.33	4.35	3.68	4.26	1.63	2.72
8월 27일	4.33	4.36	3.61	4.23	1.63	2.70
8월 28일	-	4.36	3.63	4.20	1.62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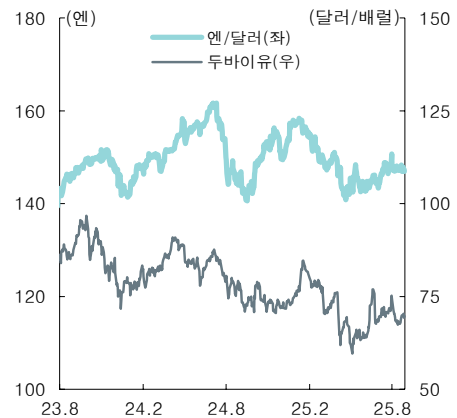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3년말	4,769.8	33,464.2	2,974.9	4,521.4
'24년말	5,881.6	39,894.5	3,351.8	4,896.0
7월말	6,339.4	41,069.8	3,573.2	5,319.9
8월 22일	6,466.9	42,633.3	3,825.8	5,488.2
8월 25일	6,439.3	42,807.8	3,883.6	5,444.0
8월 26일	6,465.9	42,394.4	3,868.4	5,383.7
8월 27일	6,481.4	42,520.3	3,800.4	5,393.1
8월 28일	6,501.9	42,828.8	3,843.6	5,396.7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3년말	141.36	1.106	79.1	2,083.5
'24년말	157.36	1.036	75.9	2,641.0
7월말	150.69	1.141	75.2	3,348.6
8월 22일	146.90	1.171	69.9	3,418.5
8월 25일	147.84	1.162	70.0	3,417.5
8월 26일	147.37	1.164	70.4	3,433.0
8월 27일	147.41	1.164	69.3	3,448.6
8월 28일	146.90	1.168	69.7	-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5권 17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5년 8월 29일 인쇄

2025년 9월 1일 발행

발행인 이호성

편집인 안성학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